J Korean Acad Nurs Vol.38 No.5, 739-747
DOI: 10.4040/jkan.2008.38.5.739

여성 독거노인의 삶

김춘미[1] · 고문희[2] · 김문정[3] · 김주현[4] · 김희자[5] · 문진하[1] · 백경선[6] · 손행미[7] · 오상은[8] · 이영애[9] · 최정숙[10]

[1]여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2]초당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3]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강사, [4]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5]충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진주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7]울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8]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9]원광보건대학 간호과 교수, [10]강릉대학교 간호과 교수

The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Kim, Chunmi[1] · Ko, Moon Hee[2] · Kim, Moon Jeong[3] · Kim, Joohyun[4] · Kim, Hee Ja[5] · Moon, Jin Ha[1]
Baek, Kyoung Seon[6] · Son, Haeng-Mi[7] · Oh, SangEun[8] · Lee, YoungAe[9] · Choi, Jung-Sook[10]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Yeoju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Muan
[3]Clinical Lecture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4]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5]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ju Natioanl University, Chungju
[6]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Jinju
[7]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lsan University, Ulsan
[8]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9]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ksan
[10]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Wonju,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cover the fundamental nature of living alone in female elderly. **Methods:**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 developed by van Manen was adopted. **Results:** The theme was 'taking a firm stand alone on the edges of life'. The composition elements of living alone experienced by elderly women were as follows: 1) Corporeality: participants perceived their bodies by their health status. Unhealthy participants were suffering with diseases and dependant on other persons, while healthy participants were free from family responsibility and kept on moving. 2) Spatiality: participants felt both freedom and loneliness while they stayed home. 3) Relationality: participants felt pity and yearning for their bereaved husband and sometimes talked to his picture. According to their children's filial piety, participants were pleased or displeased. However, they incessantly devoted themselves to their children. 4) Temporality: participants considered the rest of their life as extra-time which was proceeding to death, and tried to keep themselves busy before they died. **Conclusion:** A nurse should understand the multifarious aspects of elderly women's life, and then intervene to consolidate their strengths for self-supporting the final years of life.

Key words: Elderly, Woman,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9.1%이었으며, 2026년 에는 20.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반해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로 전통적인 노인부양 가치관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Im & Jung, 1988). 이에 65세

주요어 : 노인, 여성, 질적 연구

*이 논문은 2007년도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Fund.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Chunmi
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454-5 Gyo-ri, Yeoju-eup, Yeoju-gun 469-705, Korea
Tel: 82-31-880-5373 Fax: 82-31-885-7041 E-mail: cmchoi@chollian.net

투고일 : 2008년 2월 2일 심사의뢰일 : 2008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8일

이상 노인 단독가구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1985년 6.6%에서 2004년 26.5%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이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오히려 독거생활을 원하고 있기에(Worobey & Angel, 1990) 독거노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63.1%가 여성으로(Song, Hah, Yu, & Park, 2004), Butler (1975)는 미국에서도 노인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정도로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여성 독거노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독거노인이란 사실상 부양해 줄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영양상태 불량 및 신체건강 악화(Joo & Yoon, 1993), 경제적 지위 하락, 사회적 · 심리적 고립 등으로 일찍 사망하거나(Davis, Neuhause, Mortis, & Segal, 1992)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Steinbach, 1992). Kim과 Jung (2002)은 독거노인들 대부분이 영양상태가 불량하며 우울정도가 높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일상생활 활동저하이며,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Lee (2003)는 독거노인들의 간호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 수단적 일상생활동정도가 낮을수록, 여자일수록, 독거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간호요구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거노인들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며 여성 독거노인들은 주변의 부양 및 지지 체계의 결여와 노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성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복지 및 의료 부담을 가중시키게 한다.

Hall과 Stevens (1991)는 여성에 관해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여성의 삶의 경험과 사상, 그리고 욕구 등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현실적, 사회구조적, 그리고 대인 관계적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들(Kim & Jun, 1997; Kim & Kim, 1996)은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이 과거에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경제력을 가질 수조차 없었으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출산과 과중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여성 특유의 건강문제를 지니게 되었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관습적 제약을 받거나 사회활동 참여의 경험부족으로 제도적 지원을 활용할 능력이 결여되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심각한 노화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삶을 고찰해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여성 독거노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삶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해석학적 현상학적 스토리로 엮어내는 것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들이 체험하는 삶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van Manen (1997)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1.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독거노인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기로 한 21명의 여성 독거노인이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68-89세이고, 교육수준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 수준이었다. 독거기간은 2-41년으로 다양했다. 경제수준은 어려운 편으로 6명의 노인만이 자립하는 편이었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대부분 고령인지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및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모든 면담의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한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한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면담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두로 받았으며 면담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에 의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자 소개를 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결혼 관련 및 건강 상태 질문 등을 통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담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가 익숙하고 편하게 느끼는 공간을 선정하고 주로 연구 대상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질문은 "혼자되신 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혼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혼자 사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이었다. 면담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30분 정도였다. 녹취된 자료를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한 후 거듭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재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균 1-2회 면접을 하였고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였다. 연구자들은 전체 과정 동안 연구자들 자신의 여성 독거노인 경험과 현상, 그 의미에 관한 선이해를 포함한 판단중지를 하면서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 (1997)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즉,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체험의 본질로 돌아가기, 체험한 그대로 탐구하기,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및 글쓰기의 과정을 거쳤다. 분석단계인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은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체험의 의미구조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주제 분석과 생활세계의 네 가지 실존체를 중심으로 한 반성을 포함한다. 주제 분석을 위하여 먼저 면담녹음, 필사자료 등 모든 체험기술로부터 현상의 주제적 진술을 분리해냈다. 이처럼 여러 체험적 자료로부터 주제와 주제적 진술들을 얻은 후 주제적 진술을 포착할 수 있도록 현상학적 민감성이 좀 더 돋보이는 짤막한 글을 씀으로써 언어적 변형을 구성한 후 우연적 주제와 본질적 주제를 구분하였다.

van Manen (1998)이 말하는 생활세계의 체험에는 몸, 시간, 공간, 타자 등 네 가지 실존체가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첫째, 체험적 공간 즉, 공간성은 측정가능한 수학적 공간이나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둘째, 체험된 몸인 신체성은 스스로 느끼고 지각하는 자기의 몸이며 세상과 교류하는 주체로서의 몸이다. 셋째, 체험된 시간인 시간성은 존재의 본질이며 시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주관적인 시간을 뜻한다. 넷째, 체험된 타자인 관계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에서 타자들과 유지하는 체험적 관계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글쓰기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의미를 두텁게 쌓아가는 작업이다. 이러한 글쓰기 작업을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게 되고 경험의 실존적 구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11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연구 주제의 설정에서부터 글쓰기의 전 과정 동안 잦은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질적연구의 평가기준인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 (1985)의 네 가지 논점인 사실적 가치(신빙성), 적용성(적합성), 일관성(신뢰도), 중립성(객관성)을 충족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려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실적 가치평가를 위해 연구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괄호처리' 하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대로의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모든 녹음된 면담내용은 연구자가 반복해 들으면서 필사본과 대조하면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평가기준인 적합성을 위해서는 여성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자연세팅에서 편안하게 면담을 실시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중된 참여자 집단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을 면담하고자 노력하였다. 일관성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van Manen (1997)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 과정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중립성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평가기준이 확립될 때 획득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충족되었다고 본다.

연구 결과

여성노인의 독거생활의 본질적인 체험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째, 체험된 몸: 신체성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몸', '의존적인 몸', '자유로워진 몸',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몸', '쇠락해가는 몸', '평온한 죽음을 기다리는 몸', '궁핍으로 위협받는 몸'; 둘째, 체험된 공간: 공간성에서는 '자유로운 공간'과 '외로운 공간'; 셋째, 체험된 관계: 관계성에서는 '사별한 남편: 지속되는 대화의 상대', '자녀와의 관계: 대우받음, 자식에 대한 섭섭함, 끊임없이 헌신함, 외로움'; 넷째, 체험된 시간: 시간성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덤으로의 시간', '바쁘게 채워져야 하는 시간'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독거 생활의 본질적인 체험을 구성하는 요소인 4가지 실존체를 통합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주제는 "홀로 놓여진 삶의 변방에서 꿋꿋이 살아감"으로 명명되었다.

1. 체험된 몸: 신체성

1) 질병으로 고통받는 몸

노인들은 주로 관절염, 고혈압, 소화기장애, 천식, 당뇨, 신

경통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독거노인에게는 지병의 악화로 마음대로 수족을 못 쓰게 되는 몸의 체험이 특히 더 심한 고통이었다. 홀로 신체적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죽는 것을 간절히 원하였다.

> 일어나려면 한 바퀴 구르고, 걸을 땐 그냥저냥 걸어유. 화장실 가서 주저 앉는게 힘들어 못 다녔어. 이게 통 구부려지지가 않아서 정말 이게 지저분한 소리지만, 서서 똥 누고 서서 오줌 누고, 이게 구부려지지가 않으니까.

2) 의존적인 몸

여성 독거노인이 스스로 기동할 수 없는 의존적인 몸이 되었을 때, 보조기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고, 필요할 때 움직여주는 몸이 아니었다. 독거노인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식이나 이웃이 곁에 있었지만, 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의존적인 몸은 짐이 되었고, 차라리 삶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다리가 아파서 간병인 도움 없이는 휠체어도 못 타. 간병인 없으면 택시타고 목욕탕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 택시 값이 무서운 게 밖엘 못 나다니지. 미안하제. 짐이 되니까. 얼른 거두어가셨으면 좋으련만 마음대로 되는가?

3) 자유로워진 몸

남편과 헤어져 홀로 지낸 기간에 관계없이 독거 여성노인은 한결같이 독신생활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최근 사별한 참여자들은 남편의 뒷바라지로 구속되어 있던 자신과 비교하여 사별 후 자유로워진 자신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힘든 간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났다. 특히 건강과 경제적 문제가 제약이 되지 않는 독거 여성 노인인 경우, 마음껏 여가선용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즐기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않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자신만을 위한 밥상은 차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간소한 식사로 영양상의 문제가 생기고 체중감소나 질병을 초래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 영감 잘 갔네. 나 너무 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 내가 편안하니까. 나를 보상하는 대신에 나를 자유를 줬다 나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모두 실컷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도 10시에 들어와도 뭐라카나 11시에 들어와도 뭐라카나 저녁 다 사먹고 들어와.

4)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몸

여성 독거노인들은 특별한 취미가 없어도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매일 출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이나 쇼핑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무엇인가를 하려 하였다. 집안일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일마저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구조로서 필요한 일이었다.

> 낮에는 그저 쏘대고 낮에는 성경책도 한 번 읽어보고 성당도 한 번 갔다 오고. 성당은 매일 한 번은 갔다 와야 하잖아. 성당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또 노인정에서 불러. 화투라도 치자고. 그러면 화투 치고.

5) 쇠락해가는 몸

여성 독거노인들은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수용하면서도 젊었을 때와 비교되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느끼는 씁쓸한 상실감은 어쩔 수 없었다. 늙어 버린 외모와 쇠잔한 신체, 집안의 의사결정에서 마저 소외되는 무력한 자신들을 느낄 때 서러웠다. 여성 독거노인들은 나이 들어가며 일할 수 있는 기력과 능력, 의욕이 시들어가는 자신을 지켜보며 늙어감에 따르는 상실의 과정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내가 체력이 딸리나 봐. 몇 년 전까지도 내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저 음식 해놓고 그냥 아무개도 오라 누구도 와라 그냥 와서 노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 그런데 요즘엔 내가 아주 귀찮은 생각이 들어. 내가 이제 늙나봐. 싫어 이젠 아주 힘들고.

6) 평온한 죽음을 기다리는 몸

여성 독거노인들은 남은 생을 건강하게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죽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였다. 병으로 인한 고통 없이, 자식들에게 힘든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망이자 과제였다. 여성 노인들은 오히려 죽음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장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였다. 자신의 장례를 누가 치러줄 것이며 어떤 절차로 치러줄 것인지, 걱정과 궁금함을 함께 갖고 있었다.

죽을 일이 갑갑하제. 어찌해 같고 잠자듯이 죽으면 좋겠다 그것이제. 뭐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한가? 살다가 죽으면 되제.

7) 궁핍으로 위협받는 몸

여성 독거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용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병든 몸의 치료비와 약값을 걱정하고 심지어는 난방비와 식사의 해결을 근심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다.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남은 재산을 쓰거나, 자녀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몸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하여 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은퇴한 노인의 경우 연금으로 생활하였고, 저소득층인 경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혹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대체로 부족한 편이었다. 부정기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독거 여성노인들은 필수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 고민하였으며 노후대책을 못한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을 자책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독거 여성노인들은 생계유지와 미래를 대비하여 생활비 규모를 줄이고 계획성 있는 금전관리를 하였다.

돈이 복잡하지. 매달 약 사먹는 거 돈이 어디여. 돈이 바닥을 긁어요. 자식들이 용돈주는 거.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중략)... 몸뚱아리 아프지 돈은 아쉽지 그거 어려워.

2. 체험된 공간: 공간성

1) 자유로운 공간

여성 독거노인들은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콘도라고 표현하며 거리낄 것 없이 친구들에게 개방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독거'를 체험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경우에도 혼자만의 공간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의 일상에 끼어들어 번거로운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한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자식의 삶의 공간과 거리를 두는 독거 공간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혼자 살아서 참 편하고 좋은거 같아. 안 편할래야 안 편할 수 없지. 오히려 같이 살려면 더 불편해. 며느리는 제 신랑 오면 밥 먹을라고 기다리는데 내가 우두커니 한 켠에 앉아 있으면 밥 안 차려줄 수 없고 그런 거 아냐? 내 수족 움직일 수 있는데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2) 외로운 공간

참여자들은 낮 동안 노인정이나 복지관, 종교 단체에 참여하면서 외로울 새 없는 일상을 지내면서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은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 고독함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혼자 사는데 나 혼자 일어나 밥먹고 혼자 연속극보다 테레비 켜놓고 잠들어. 고독하지요.
늙으면 외롭지요. 외로운 건 말로 다 못하지요. 집이래야 말동무 하나 없으니...

3. 체험된 관계: 관계성

1) 사별한 남편: 지속되는 대화의 상대

참여자들은 생전의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상관없이 사별한 남편은 여전히 인간관계의 중요한 상대로 남아있었다. 외출과 귀가 시에 사진 속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을 걸었고, 남편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이 되면 생시에 했던 대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다. 종종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쳤고, 생전의 남편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미안함, 연민, 원망을 느꼈다.

땅 속에 있는 사람이 뭘 잘 있어? 근데도 어떨까 괜찮은가? 잘 있나? 그냥 하여간 궁금증 나고 그래요. 생일도 낼 모랜데 그냥 나 혼자 미역국 끓이고 산소에 가봤으면 좋겠는데...

2) 자녀와의 관계

(1) 대우 받음

여성 독거노인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안과 지지가 되었다. 더욱이 자녀들이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줄 때면 지금까지의 삶을 보상받는 부듯함을 느꼈다. 주말에 방문하는 자녀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고, 자신을 위해 옷을 사주고 외식을 시켜주는 자녀들은 큰 자랑이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준다든지 자녀들이 방문하여 자신의 빨래와 청소, 음식 등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효도와 대접받는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딸들이 오면 좋죠. 딸들이 오면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기도 좋고 먹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깐 기쁘지. 애들이 늘 엄마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건강 조심하라고 이러지.

(2) 자식에 대한 섭섭함

독거 여성노인은 홀로 있는 자신에 대한 자식들의 무관심에 섭

섭함을 느꼈다. 자녀들이 바쁜 일상을 구실삼아 부모님의 방문을 등한시할 때, 집안 대소사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당할 때,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들마저 서먹해질 때,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특히, 자녀 양육 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경우, 자녀들로부터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면, 고단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이해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원망과 슬픔이 체념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 어느 때 화가 젤 많이 나냐면 뭐 자손들이 좀 소홀하게 했을 때 화가 나지... 늬들도 내 나이만 지나봐라. 이렇게 화가 나지.

(3) 끊임없이 헌신함

여성 독거노인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까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였다. 자녀들의 직장생활, 집 마련,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려 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식의 채무까지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신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다. 오직 자식들 잘 되기만을 기도하며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식에 대한 염려와 헌신을 표현하였다.

> 인제 다른 기도야, 자식들 잘되란 기도지 무슨 기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저희도 살기 힘드니까 나는 바라지도 않아. 생일 때 왔다 가고. 내가 생일 때도 오지 말라 그러지 바쁜데 인제 너들도 살기 힘든데 나야 뭐...

3) 외로움

여성 독거노인들은 곁에 일상을 함께 할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을 절실히 겪어내고 있었다. 문득, 남편이 곁에 없다고 인식될 때, 자녀들이 다녀간 후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견디기 힘든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결국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는 하느님만이 외로움을 함께하는 대상이 되었다.

> 외로운 게 힘들어. 언제 이렇게 얘기라도 하고 할까...(중략)... 남편 있는 게 대복이라고 내가 맨날 그러지. 남편 없어보라고 얼마나 외로운 줄 아냐고...

4. 체험된 시간: 시간성

1)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여성 독거노인들의 시간 체험은 여생에 대한 제한된 시간의 인식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이들은 죽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가오는 순리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이만큼 살아왔으니 죽는다고 아쉬울 것 없다는 죽음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죽음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하며, 막연한 과정으로 느끼고 있었다.

> 할 수 없죠. 어떡해요. 나이 뭐 가는 세월 잡을 수 있어요? 그저 아프지만 않고 가만히 죽는게 그게 소원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2) 덤으로의 시간

여성 독거노인들의 시간 체험은 고단한 삶의 여정의 고비 고비를 지나며 순리에 따라 자신의 몫으로 감당해야 할 도리와 누릴 수 있는 낙을 모두 마친 듯 담담하고 지루한 덤으로의 시간이었다.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을 기대할 것이 없는 나머지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 노인이란 소망이 없잖어 하루하루 생명을 거둬간다고 여기지. 죽는다는 거 별거 아니지. 그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이제 옆에서 다시는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 그거지. 다른 거는 아쉬울 것도 없고 그저 자다가 고요히 가면 그것 하나 소원이지.

3) 바쁘게 채워져야 하는 시간

여성 독거노인들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짜임새 있게 자신의 스케줄대로 잘 영위하고 있었다. 시간이 비어 있으면 안 될 듯이 한시도 쉴 사이 없이 집안일을 하였고, 종교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특별한 취미가 없어도 매일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출근하여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어울려 소일하며 일상적인 시간을 바쁘게 채우고 있었다.

> 똑같이 갔다 똑같이 와요. 그리고 또 머 하루는 노래하는 것도 하고 하루는 운동하는 것도 하고, 하루는 종이 접는 것도 하고, 또 3월 달에 또 할거여.

5.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여성 독거노인이 체험하는 삶의 현상학적 스토리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주거공간을 혼자 점유한다는 것, 곁에 함께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나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의존적이 되어 가는 몸으로 의

존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부과된 사회적 역할이 없다는 것,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는 시간의 제한 속에 자유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성 독거노인의 삶은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각각 살아온 개인의 역사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체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체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홀로 놓여진 삶의 변방에서 꿋꿋이 살아감' 이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성장한 자식들을 분가시키면서 세월의 여정 속에서 가족생활의 중심체였던 여성노인들은 조금씩 쇠락해지며 삶의 변방으로 물러났다. 여성노인들은 그녀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들이 나날이 소실되어가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결국 가족들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되는 것을 걱정하며 움츠러들기도 하였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남을 도와줄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여성노인들은 여전히 자식들을 염려하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따뜻하고 소박한 존재였다. 여성노인들은 다해가는 삶의 여정을 혼자서 걸어가지만, 바쁘게 채워가면서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가능한 한 현실에 순응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꿋꿋이 생활하고 있었다.

홀로 사는 여성노인의 작은 삶의 공간은 그들만을 위해 열려 있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마치 원하면 잠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콘도"와 같은 곳이었다. 또한 그들은 누구든 걸릴 것 없이 자유로운 몸을 체험하였다. 특히 남편의 병 수발로 오랜 동안 구속되어 있던 참여자들은 홀로된 자유로운 몸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 취미 생활, 친교, 종교 활동 등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움은 물질적 결핍과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인하여 제한되기 시작한다.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병들어 아픈 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도 못하는 구속된 몸, 생존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궁핍은 그들의 자유로움에 제약을 가한다. 자녀들은 떨어져 살면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로 엮어져 참여자들의 현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였다. 자녀들로부터 관심과 돌봄을 받으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스스로 돌보지 않았던 자기를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가족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자녀들의 무관심을 느끼면서, 또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능력을 잃어가면서 자녀들의 삶의 영역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는 자신을 발견하고 상실감과 비애를 체험하였다. 한편, 자녀와의 관계는 자유로움의 구속이 되기도 하였는데, 스스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삶에 얽혀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부족함을 메워주려는 어머니의 삶을 사는 경우가 그러하였다. 반면 자녀들의 삶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경우에는 다만 기도해주며 마음으로 성원하는 여유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다.

사별한 남편은 생전에 어떠했던 그리움과 미움, 하소연의 대상으로 참여자들 곁에 있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현재의 삶에 고단함을 느낄 때, 자유로움을 즐기고 있을 때조차 문득 그들의 현재에 끼어들곤 하였다.

참여자들은 일상을 일거리로 채워가려 하였다. 넘치는 시간 앞에 무기력해진 자신을 추스르고 자신의 존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구조화하려 애썼다. 늙어 감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자기 돌봄 능력을 유지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은 남성 노인에 비해 자기 정체성을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시간을 몸이 허락하는 한 부지런히 움직여 채워가면서, 멀지 않아 찾아올 종말의 시간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독거 여성 노인의 삶은 축소된 공간을 완전히 점유하는 자유로움이었으며, 제한적인 시간을 재구성하고 초월해가는 과정이었다. 점점 더 의존적으로 되어가는 결핍된 몸을 스스로 추스르고 독립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역설적인 몸의 체험이었으며,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애착과 여유의 이중적인 관계였다.

논 의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66%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노화와 더불어 질병은 함께 겪어내야 하는 삶의 과제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건강상태에 따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몸, 의존적인 몸을 체험하고 있었다. 이는 Yang (2005)의 연구에서 만성통증 환자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장애물로서의 몸, 고통으로 항상 의식하게 되는 몸의 체험과 유사하였다. 한편, Kim과 Jung (2002)은 독거노인들의 영양상태가 불량하며 우울정도가 높은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일상생활활동이며,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고, Lee (2003)는 독거노인들의 간호요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정도가 낮을수록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병들어 아픈 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외출도 못하는 구속된 몸, 생존의 기본적 요구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쪼들림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결과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정의한 노인 집단이 인생관과 신체적 건강을 건강의 요소로 들었지만 아픈 노인 집단은 기동성과 자립성을

건강의 특징 요소로 보았으며(van Maanen, 2006), 재가노인이 건강증진행위점수가 높고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Jeon & Kim, 2006)와 유사하다.

한편, 여성으로서 가족을 돌보며 부지런히 움직여 왔던 몸은,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가운데 존재의 구조를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건강의 상태에 관계없이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몸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고, 간절한 소망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몸이었는데, 이는 모든 노인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Kim, Lee, & Kim, 2003; Yang, 2005).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공간은 자유로우면서도 외로운 공간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에게 개방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현상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독거생활을 원하는 경제력을 갖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Worobey와 Angel (1990)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공간에 고독함이 밀려오는 체험을 하곤 하였는데, 이는 혼자 살고 있는 환경요인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한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 심리적 요구, 돌봄의 요구를 제시한 Lee (2003)와 Park (1994) 등의 연구들과 비슷하다.

노년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가족과의 유대와 관계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가족 관계는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사별한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자녀와의 관계는 존재의 가치를 채워주거나 공허하게 하는 중요한 체험으로 나타났다. 자식들에게 대우받을 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뿌듯함을, 그렇지 못할 때는 존재의 의미를 위협당하는 섭섭함을 체험하였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제외될 때 힘의 상실로 인한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고, 관계가 단절될 경우 원망과 회한마저 체험하였다. 이런 현상은 남편과 사별한 여성노인은 전통적으로 자녀들과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속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집단과 공동체 이익 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Jung, 2005). Lee (2005)의 연구에서는 특히 남성 독거노인의 경우 고독을 일상의 벗 내지는 관계의 체념으로 본 연구 참여자와 비교하여 더 심화된 고립과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조, 상호부조활동 등 대인관계의 상호성을 강조한 실천적 활동을 통한 권한부여가 노년기 삶의 대처능력을 증진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 형성을 통한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데(Cox & Parsons, 1994),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여성독거노인의 인간관계는 비교적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는 받는 관계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주는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시간의 의미는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지루한 덤으로의 시간이면서도 매일의 일상은 바쁘게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시간의 의미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향유라기보다는, 할 일이 없어 얽매임이 없는 시간으로 흩어져 버릴 듯한 자신의 존재를 추슬러 구조화하고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ee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노인에 비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죽음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남은 시간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죽음을 순리로 생각하면서도 아직은 아닌, 막연한 시간으로 인식하며 부지런히 현재의 시간을 조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Sim (2004)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자책과 더불어 현재의 삶이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막막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의존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의 막막함은 본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홀로 살아가는 여성노인의 삶은 노쇠함과 질병으로 몸의 의존성이 증가되지만, 끝까지 자식들의 처지를 배려하고 힘을 다해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어머니로서의 능동적인 삶이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에 의해 부여되는 가치에 따라 자신의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수동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요약하면,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체험의 구조는 병들고 쇠락해가는 몸으로 인하여 겪어내야 하는 구속되고 의존적인 삶의 과정을 오히려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역설적인 삶이었다. 따라서 노인들이 건강의 유지와 더불어 그들의 시간과 공간을 좀 더 잘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 속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인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도시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여성노인으로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허락한 21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개인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이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혼자 사는 여성노인의 삶의 주제는 '홀로 놓여진 삶의 변방에서 꿋꿋이 살아감'으로 명명되었다. 그에 따른 생활세

계의 네 가지 구성요소는 첫째, 체험된 몸: 신체성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몸', '의존적인 몸', '자유로워진 몸',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몸', '쇠락해가는 몸', '평온한 죽음을 기다리는 몸', '궁핍으로 위협받는 몸'; 둘째, 체험된 공간: 공간성에서는 '자유로운 공간'과 '외로운 공간'; 셋째, 체험된 관계: 관계성에서는 '사별한 남편: 지속되는 대화의 상대', '자녀와의 관계: 대우받음, 자식에 대한 섭섭함, 끊임없이 헌신함, 외로움'; 넷째, 체험된 시간: 시간성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덤으로의 시간', '바쁘게 채워져야 하는 시간' 등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향후 연구와 간호 실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는 남성 독거노인에 대한 성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 실무에서는 여성노인이 체험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간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신체적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역할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 존재의 소중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을 통한 관계형성과 바쁜 일상 만들기와 같은 통합적인 간호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Butler, R. (1975). *Why service? Growing old America.* New York, NY: Harpers and Row.

Cox, E. O., & Parsons, R. J. (1994). *Empowerment-oriented social work practice with the elderl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Davis, M. A., Neuhause, J. M., Mortis, D. J., & Mark, R. S. (1992). Living arrangements and survival among middle aged and older adults in the NHANES I epidemiologic follow up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2,* 401-406.

Guba, E. G., & Lincoln, Y, S. (1985).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Hall, J. M., & Stevens, P. E. (1991). Rigor in feminist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3,* 16-29.

Im, C. H., & Jung, O. B. (1988). Supporting attitude type of the married eldest son and his wife living separately, from his parents -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6,* 163-173.

Jeon, E. Y., & Kim, K. B. (2006). A study of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motion of healthy behavior in the elderly according to types of resid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475-483.

Joo, S. S., & Yoon, S. R. (1993). A comparative study on the general health between the couple and single aged.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3,* 55-62.

Jung, S. D. (2005). *The strength model.* Paju: Jibmundang.

Kim, J. H., & Jung, Y. M. (2002).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living alon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4,* 16-26.

Kim, M. H. (2003). Analysis on image of the elderly in "Ohmynews" as internet newspaper. *Journal of Gerontology, 23,* 13-30.

Kim, S. M., Lee, Y. J., & Kim, S. Y. (2003). Attributes considered important for a good death among elderly and adul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3,* 95-110.

Kim, T. H., & Jun, K. Y. (1997). A study on the conjugal support, the share of household activities and marital adjustment in old ag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7,* 167-182.

Kim, T. H., & Kim, S. J. (1996). A study on the solitary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three generation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6,* 110-129.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05- 2050.* Retrieved October 2, 2008, from http://kosis.nso.go.kr/ Magazine/PJ/PJ0101.pdf

Lee, J. S. (2005). *Qualitative study on the attitude & perception of the living alone aged towards dea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kuk University. Gyeongju.

Lee, M. S. (2003). Factors influencing health care needs of solitud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812-8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The 2004 survey on the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Retrieved October 2, 2008, from http://www.mw.go.kr/user.tdf

Park, Y. H. (1994). *Home care need of the elderly in a coun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im, M, S. (2004). *Health experience of low income elderly living alone from the perspective of Newman's praxis method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Gwangju.

Song, M. S., Hah, Y. S., Yu, S. J., & Park, Y. H. (2004) *Gerontological nursing.*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teinbach, U. (1992). Social networks, institutionalization and mortality among elderl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Gerontology, 47,* S183-S190.

van Maanen, H. M. (2006). Being old does not mean being sick: Perspectives on conditions of health as perceived by British and American elderl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 54-64.

van Manen, M.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New York, NY: Sunny Press.

van Manen, M. (1998). Modalities of body experience in illness and healt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8,* 7-24.

Worobey, J., & Angel, R. J. (1990). Functional capacity and living arrangement of unmarried elderly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45,* S95-S101.

Yang, J. H. (2005). The experience of life experience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and extremity pa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955-966.